

심신 기능 손상 노인을 돌보는 가족수발자 부담의 한국에서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최 해 경^{**}

I. 서 론	III. 연구 방법
II. 연구의 개념적 틀	1. 가설 설정
1. 수발자 부담	2. 표본
2. 문화적 요소	3. 자료 수집 방법
3. 수발자와 수발 대상 노인의 개인적 특성	4. 연구 변수의 측정
4. 수발 대상 노인의 심신 기능 손상과 수발자 관련 정도	5. 자료 분석 방법
5. 사회적 지지와 수발에 대한 보상	N. 연구 결과
	V. 결 론

I. 서 론

심신 기능 손상 노인을 돌보는 가족 수발자가 느끼는 부담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그 부담 정도가 수발자와 수발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 상태, 수발자의 관련 정도, 수발에 대한 수발자의 마음 가짐,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 이용 가능한 사적, 공적 지원과 같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한다.¹⁾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주의, 자립정신, 부

*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요약

**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1) Baillie, V. et al.,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Nursing Research, 37, 1988, pp.217-222.

Bass, D. M., Tausig, M. B., & Noelker, L. S., Elder Impairment, "Social Support and Caregiver Strain: A Framework

- For Understanding Support's Effects,"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3, 1988/1989, pp.80-117.
- Cantor, M. H., "Strain Among Caregivers: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 1983, pp.597-604.
- Caserta, M. S., Lund, D. A., Wright, S. D., & Redburn, D. E., "Caregivers to Dementia patients: The Utilization of Community Services," The Gerontologist, 27, 1987, pp.209-214.
- Deimling, G. T., & Bass, D. M., "ymptoms of Mental Impairment among Elderly Adults and Their Effects on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1, 1986, pp. 778-784.
- Deimling, G. T., Bass, D. M., Townsend, A. L., & Noelker, L. S., "Care-related Stress: A Comparison of Spouse and Adult Child Caregivers in Shared and Separate Household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 1989, pp.67-82.
- Fadden, G., Bebbington, P., & Kuipers, L. "The Burden of Care : The Impact of Functional Psychiatric Illness on The Patient's Famil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0, 1987, pp.285-292.
- Fitting, M., Rabins, D., Lucas, M. J., & Eastham, J.,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s: A Comparison of Husbands and Wives," The Gerontologist, 26, 1986, pp.248-252.
- Hooyman, N., Gonyea, J., & Montgomery, R., "The Impact of Services Termination on Family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5, 1985, pp.141-145.
- Lawton, M. P., Brody, E. M., & Saperstein, A. R., "A Controlled Study of Respite Services for Caregivers of Alzheimer's Patients," The Gerontologist, 29, 1989, pp.8-16.
- Miller, B., "Gender Differences in Spouse Management of The Caregiver role," in Circles of Care :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E. K. Abel and M. K. Nelson(Eds.),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 Miller, B., Mcfall, S., & Montgomery, A., "The Impact of Elder Health, Caregiver Involvement, and Global Stress on Two Dimensions of Caregiver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46, 1991, pp.9-19.
- Morycz, K., "Caregiving Strain and The Desire to Institutionalize Family Members with Alzheimer's Disease," Research on Aging, 7, 1985, pp.329-361.
- Poulshock, S. W., & Deimling, G. T., "Families Caring for Elders in Residence :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39, 1984, pp.230-239.
- Scharlach, A., & Frenzel, C., "An Evaluation of Institution-based Respite Care," The Gerontologist, 26, 1986, pp.77-82.

부 중심의 가족 개념 등이 지배적인 서구 문화에서 수발자 부담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요인은, 문화마다 부양 가족원의 보호 요구에 대한 가족 반응에 영향미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있어 다르기 때문에, 수발자 부담의 정도에 관련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노후의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장남에게 있는 오랜 전통적 관습이 남아 있다. 또한 전통적 규범에 따르면 결혼한 딸은 출가외인으로 시집에 충실히해야 한다.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을 돌보는 일 이 노인 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와 수발자 선정과 같은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 결과들은 매우 다른 문화적 가치 체계를 가진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발자 부담의 결정 요인으로서 문화적인 요인들을 지지 혹은 반박할 실증적 연구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 심신 기능 손상 노인을 돌보는 가족 수발자의 부담에 미치는 비문화적인 요인들 뿐 아니라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해 볼으로써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을 돌보는 가족 수발자 부담의 설명적 모형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부수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과 그 가족의 불충족된 요구와 수발자 부

Scott, J. P., Roberto, K. A., & Hutton, J. T., "Families of Alzheimer's Victims: Family Support to Caregiver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4, 1986, pp. 348-354.

Sheehan, N. W., & Nuttall, P., Conflict, "Emotion and Personal Strain among Family Caregivers," Family Relations, 37, 1988, pp. 92-98.

Silliman, R. A., & Sternberg, J. "Family Caregiving: Impact of Patient Functioning and Underlying Causes of Dependency," The Gerontologist, 28, 1988, pp. 377-382.

Stommel, M. et al., "Depression as an Overriding Variable Explaining Caregiver Burden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 1990, pp. 81-102.

Young, R. F., & Kahana, E., "Specifying Caregiver Outcomes: Gender & Relationship Aspects of Caregiving Strain," The Gerontologist, 29, 1989, pp. 660-666.

Zarit, S. H., Todd, P. A., & Zarit, J. M., "Subjective Burden of Husbands and Wives as Caregivers: A Longitudinal Study," The Gerontologist, 26, 1986, pp. 260-266.

담의 결정 요소를 규명하여, 노인 인구의 장기적 보호(long-term care) 요구를 다루기 위해 문화적 차작을 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II. 연구의 개념적 틀

1. 수발자 부담(caregiver burden)

수발자 부담은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을 돌보는 데서 비롯된 수발자가 겪는 제반 손실로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수발자 부담의 본질을 연역적인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파악한 점이 그 개념 정의에 있어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수발자 부담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론적 고찰없이 수발자와의 임상 경험과 문헌에 나타난 수발자의 감정에 관한 일화들을 토대로 선택되었으며 어느 요소들이 수발자 부담의 평가에 포함될 것인지는 요인 분석과 같은 분석 기술들이 결정하였다.

이와같은 이론적 고찰의 결핍이 수발자 부담의 정의와 측정에 있어 상당한 논쟁을 야기시켰다. 예를 들면 일부 연구들은 수발자 부담을 수발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혹은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의한다.²⁾ 이 연구들은 수발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들이 수발로 인한 객관적인 문제점들의 평가를 박영하며 또한 수발자의 개인 생활 및 집안 사정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반영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객관적 부담(objective burden)과 주관적 부담(subjective burden)을 구별하는데, 객관적 부담이란 수발자의 개인 생활 및 집안 사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변화 정

2) Baillie, V. et al., op. cit.

Caserta, M. S. et al., op. cit.

Fitting, M. et al., op. cit.

Pratt, C. C., Schmall, V. L., Wright, S., & Cleland, M., "Burden and Coping Strategies of Caregivers to Alzheimer's Patients," Family Relations, 4, 1985, pp. 27-33.

Zarit, S. H. et al., op. cit.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 1980, pp. 640-655.

도를 의미하며 주관적 부담이란 수발 경험에 대한 태도나 감정적 반응을 일컫는다.³⁾ 그러나, 객관적 부담이라는 용어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Paulshock 과 Deimling은 부담의 개념이 수발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과 반응만을 나타내야 한다면서 객관적 부담(objective burden)이라는 용어보다 수발의 영향(caregiving impact)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⁴⁾ Stommel 등은 수발의 결과, 활동 혹은 상황은 수발자가 그렇게 느낄 경우에만 부담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적으로 정의된 부담은 연구자에 의해 부여된 속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⁵⁾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수발자 부담의 여러 차원들 (개인적, 사회적 제약, 육체적, 정신적 건강쇠약, 갈등적 가족관계, 재정적 고갈, 직무 방해, 감정적 반응)이 규명된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전술한 제반 차원들에 대해서 대부분 연구들은 수발자 부담의 총량을 나타내는 총계 접근 방법 (aggregate approach)을 채택했다.⁶⁾

-
- 3) Cicirelli, V. G., Helping Elderly Parents: The Role of Adult Children, Boston: Auburn House, 1981.
- Montgomery, R. J. V., Gonyea, J. G., & Hooyman, N. R.,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34, 1985, pp. 19-26.
- Thompson, E. H., & Doll, W., "The Burden of Families Coping with The Entally Ill: An Invisible Crisis," Family Relations, 31, 1982, pp. 379-388.
- Vitaliano, P. P., Russo, J., Young, H. M., Becker, J., & Maiuro, R. D., "The Screen for Caregiver Burden," The Gerontologist, 31, 1991, pp. 76-83.
- 4) Poulschok, S. W., & Deimling, G. T., op. cit.
- 5) Stommel, M. et al., op. cit.
- 5) Baillie, V. et al., op. cit.
- Barber, C. E., "Correlates of Subjective Burden among Adult Sons and Daughters Caring for Aged Parents," Journal of Aging Studies, 2, 1988, pp. 133-144.
- Cantor, M. H., op. cit.
- Caserta, M. S. et al., op. cit.
- Cicirelli, V. G., op. cit.
- Fitting et al., op. cit.
- Horowitz, A., & Shindelman, L., "Reciprocity and Affection: Past Influences on Current Caregiv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 1983, pp. 5-20.

Montgomery 등은 “특정한 문제들보다는 스트레스의 축적이 가족 보호 체계의 와해 원인이 된다”고 말하면서 총계 접근 방법의 사용을 지지했다.⁷⁾ 일부 연구들은 수발자 부담을 평가하는데 있어 총계 접근 방법보다 특정 차원별 접근 방법(dimension-specific approach)을 채택하였다.⁸⁾ Novak과

Lawton, M. P., Kleban, M. H., Moss, M., Rovine, M., & Glicksman, A., Measuring Caregiver Appraisal," Journal of Gerontology, 44, 1989, pp. 61-67.

Novak, M., & Guest, C., Application of a multidimensional caregiver burden inventory, The Gerontologist, 29, 1989, pp. 798-803.

Pratt, C. C., Schmall, V. L., & Wright, S., Ethical concerns of family caregivers to dementia patients, The Gerontologist, 27, 1987, pp. 632-638.

Robinson, B. C., Validation of a caregiver burden index, Journal of Gerontology, 38, 1983, pp. 344-348.

Scharlach, A., A comparison of employed caregivers of cognitively impaired and physically impaired elderly persons, Research on Aging, 11, 1989, pp. 225-243.

Sheehan, N. W., & Nuttall, P. op. cit.

Stoller, E. P., & Pugliesi, K. L., Other roles of caregivers: Competing responsibilities or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44, 1989, pp. 231-238.

Zarit, S. H., Todd, P. A., & Zarit, J. M., op. cit.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op. cit.

7) Montgomery, R. J. V. et al., op. cit.

8) Archbold, P. G., "All-consuming Activity: The Family as Caregiver," Generations, VII, 1982, p.12.

Deimling, G. T. et al., op. cit.

Given, B., Stommel, M., Collins, C., King, S., & Given, C. W., "Responses of Elderly Spouse Caregiver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3, 1990, pp. 77-85.

Kosberg, J. I., & Cairl, R., "The Cost of Care Index: A Case Management Tool for Screening Informal Care Providers," The Gerontologist, 26, 1986, pp. 273-278.

Noeikir, L., & Wallace, R. W., "The Organization of Family Care for Impaired Elderly," Journal of Family Issues, 6, 1985, pp. 23-44.

Reece, D., Walz, T., & Hageboeck, H.,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rs of Non-institutionalized Frail Elderly :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 1983, pp. 21-34.

Stommel, M. et al., op. cit.

Guest는 총계 접근 방법이 단일 부담 점수로 모든 항목을 합계했기 때문에 수발자 부담의 차원간의 구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⁹⁾ George 와 Gwyther 는 또한 종합적인 수발자 부담의 총계 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수발이 미치는 영향의 특정 차원별 경향을 알 수 없게 하여 수발자 부담의 특정 차원들의 각기 상이한 상관 변수들을 규명할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¹⁰⁾

전술한 바와 같이 수발자 부담에 대한 무수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 및 측정에 관련된 상당한 개념상의 문제와 연구 방법론적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 중에서 가장 큰 상이점은 수발자 부담의 조작적 정의가 수발자 부담의 각 요소들의 종합적인 평가인지 혹은 그 요소들의 특정 차원별 평가인지에 있다. 수발자 부담의 정의 및 측정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선행 연구 가운데 일관되는 것은 수발로 인한 영향이 수발에 관한 부정적 감정, 개인적인 생활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불리한 결과, 일과를 수행하는데 부딪치는 어려움과 같은 제반 손실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제반 손실들을 통합하여, 본 연구는 수발자 부담을 수발자와 수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화적 특성, 심신 기능 손상과 수발자 관련 정도, 사회적 지지 및 보상이 상호 작용하여 노인을 돌보는 일이 수발자의 생활 및 수발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의미있는 해석을 위해 수발자 부담을 논의하는데 있어 특정 차원별 접근 방법을 선택한다.

2. 문화적 요소

수발 태도와 수발자 선정에 있어서 차이를 사회적 규범과 가치 체계에 있어 문화적 차이의 결과로서 설명해 보려는 연구들이 최근에 등장했다. 예를 들어 Hirshfeld 가 지적했듯이 서구에서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부모를 수발드는 것에 관한 문화적 기대감은 중년의 딸에게 그 책임을 들리는 경향이 있다.¹¹⁾ 한편, Maeda에 따르면 장남이 노부모를 둘봐야 한다는 법적인 규

9) Novak, M., & Guest, C., op. cit.

10) George, L. K., & Gwyther, L. P.,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 1986, pp. 253-259.

11) Hirshfeld, M., "Caring for The Caregivers of The Elderly," in

정이 폐기되었을지라도 장남과 맏며느리가 노부모를 돌보는 전통은 아직도 일본에서 지켜지고 있다.⁹ 또한 수입, 교육과 같은 비문화적 요소들이 문화적 요소보다 가족 협조의 더 강력한 결정요소라는 Weihl의 연구 결과도 있다.¹⁰

본 논문에서 취하는 입장은 어떤 문화적 규범과 기대가 노인을 돌보는데 대한 가족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한다면 문화적 배경이 수발 과정의 한 영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신기능이 손상된 노인을 누가 돌봐야 하는가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규범이 아직도 수발자 선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¹¹ 한국의 전통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역할과 장자 상속주의를 감안할 때 수발 대상 노인이 여성인 경우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맏며느리가 주된 수발자로 기대된다. 만일 수발 대상이 사별한 남자 노인이라면 역시 맏며느리에 의한 수발이 기대된다. 그러나, 만일 수발 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남자 노인이라면 그 배우자가 신체적 수발(personal care)에 대해서는 주된 수발자로 기대된다. 수발자 선정에 관한 전통적 규범이 사회적 가치로 아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규범에 적합한 수발자는 그렇지 않은 수발자보다 상대적으로 수발자 부담을 덜 느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수발자의 수발자 선정에 관한 전통적인 문화적 규범과의 적합성 외에, 급격히 변화하는

Aging in the eighties and beyond, Bergener, M. et al., (ed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3.

- 12) Maeda, D., The Cultural Forces Encouraging and Supporting Caregivers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VII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 Hamburg, 1981.
 - 13) Weihl, H., "Three Issues from The Israeli Scene," The Gerontologist, 23, 1983, pp. 576-578.
 - 14) Kim, K., Kim, S., Hurh, W., Filial Piety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Paper presented at the 8th Conference of Association for Gerontology and Human Development, New Orleans, 1990.
- 이 광규, 한국 가족의 구조적 분석, 서울: 일지사, 1982.
- Lee, Y., "Social Consciousness & Participation Hopes, Angsts, & Dilemmas of Korean Women," KOREANA, 4, 1990, pp. 2-12.
- Sorensen, C., Migration, "The Family, and The Care of The Aged in Rural Korea: An Investigation of A Village in The Yongso Region of Kangwon Province 1918-1983,"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 1986, pp. 139-161.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그 규범의 효력이나 적절성에 대한 사람들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수발자 선정 관습에 대한 수발자의 태도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발 대상 노인과 수발자의 관계가 문화적으로 규정된 수발자 선택과 일치된다 해도 그 수발자가 그러한 문화적 기대에 반감을 갖고 있다면 그 수발자의 수발 부담은 매우 클 것이다.

3. 수발자와 수발 대상 노인의 개인적 특성

Pearlin 등은 수발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 수발 환경을 결정하기 쉬우며, 연속하여 수발자 생활 상태의 다양한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¹⁵⁾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수발자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하다고 가정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수발자들이 수발자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 예상된다. 이론적으로는 수발자가 충분한 수입만 있다면 노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onucci¹⁶⁾ 와 Montgomery¹⁷⁾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수발자 부담을 크게 느낀다. 그러나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과 그 수발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한국에서는 정부가 심신 기능 손상 노인의 보호를 위해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수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이하게 수발자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발자의 건강 상태 또한 수발자 부담 정도의 예측 인자로 가정된다. Pratt 등은 수발자의 건강상태가 부담정도에 유의미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¹⁸⁾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또한 수발 환경을 결정지으며 수발자 부담에 영향 미칠 수 있다. Krulik 과 Hirschfeld 에 의하면 노인의 자원이 빈약할수록

-
- 15) Pearlin, L. I., Mullan, J. T., Semple, S. J., & Skaff, M. M.,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 1990, pp. 583-594.
 - 16) Antonucci, T.,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Binstock, R. and E. Shanas (Ed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85.
 - 17) Montgomery, R. J. V. et al., *op. cit.*
 - 18) Pratt, C. C. et al., *op. cit.*

그 노인을 돌보는 일이 수발자에겐 의무 혹은 대안이 없는 선택으로 여겨진다.¹⁹ 또한, 그들은 수발자들이 수발자 자신의 자원보다 노인의 자원을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4. 수발 대상 노인의 심신 기능 손상과 수발자 관련 정도

선행 연구들은 노인의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수발자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다.²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stressor)으로서 심신 기능 손상은 신체적 수발을 요구하는 그 결과로 인해 수발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능적 의존(functional dependency)과 인지적 무능력(cognitive incapacity)에 의해 평가된다. 수발자 부담은 또한 수발자 관련의 실제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가정된다.²¹ 그러므로, 매일의 신체적 수발 시간이 길수록 수발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신체적 수발량이 증가할수록 수발자가 다른 역할과의 갈등을 겪거나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Stommel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수발량 외에 수발드는 가족이 감당하는 재정적 책임 또한 수발자 부담의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²²

5. 사회적 지지와 수발에 대한 보상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들의 영향을 조정하거나 그 자극들의 강도를 줄인다고 가정된다. 사회적 지지는 보통 도구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과 사회 정서적 지지(socioemotional support)로 이

-
- 19) Krulik, T., & Hirschfeld, M. J., "The Continuation of Home Care to Severely Impaired Children and Aged in Israel: Family Attitudes," Home Health Care Service Quarterly, 6, 1985, pp. 283-313.
 - 20) Barusch, A. S., & Spaid, W. M.,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Why Do Wives Report Greater Burden ?," The Gerontologist, 29, 1989, pp. 667-676.
 - Bass, D. M. et al., op. cit.
 - Poulshock, S. W., & Deimling, G. T., op. cit.
 - Zarit, S. H., Todd, P. A., & Zarit, J. M., op. cit.
 - 21) Barber, C. E., op. cit.
 - 22) Stommel, M. et al., op. cit.

루어져 있다. Bass 등은 노인의 심신 기능 손상의 수발자 긴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 수발자가 받는 사회적 지지의 양과 역할수 관계라는 조정-완충(Moderating-buffering) 가설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검증하였다.²³⁾ Hörl(1989)²⁴⁾에 따르면, 수발에 대한 보상-예를 들어 수발 대상자의 감사표현, 재정적 보상, 수발 대상자와 수발자 간의 관계 개선 -도 수발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중재 역할을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검토될 가설들은 수발자 부담에 있어서의 차이가 수발 과정에서의 여러 영역간 상호 작용의 소산임을 제시한 개념적 틀로부터 도출되었다.

우선 개념적 틀에서 언급했듯이 만일 수발자가 수발자 선정에 관한 전통적, 문화적 풍습을 인정한다면 그 규범에 일치되어 수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수발 책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야기하기 쉽다. 그러므로 심신 기능 손상 정도, 수발자 관련 정도, 수발자의 전통적 규범에 대한 찬성 정도를 통제하면, 수발자 선정에 관한 전통적 규범에 일치되는 수발자가 불일치되는 수발자보다 부담을 덜 느낄 것이라고 가정될 수 있다(가설 1).

한국에서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과 그 가족 수발자를 위한 정부 예산지원의 재정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것을 감안할 때 수발자의 경제적 상태, 수발 대상 노인의 재정적 상태와 수발자의 건강 상태가 수발자와 수발 대상 노인의 다른 어떤 인구 사회학적 특성보다도 수발자 부담의 강력한 결정 요소로 추정될 수 있다. 수발자 부담에 대한 이 변수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통제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23) Bass, D. M. et al., op. cit.

24) Hörl, J., "Looking Back to Caregiving: Findings from Case Studies in Vienna, Austri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4, 1989, pp. 245-256.

같은 연구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심신 기능 손상 정도를 통제하면, 수발자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수발자 부담 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가설 2); 심신 기능 손상 정도를 통제하면, 수발자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수발자 부담 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가설 3); 심신 기능 손상 정도를 통제하면, 수발 대상 노인의 재정적 지원이 많을수록 수발자 부담 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가설 4).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으로서 심신 기능 손상 정도는 수발자 부담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통 간주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심신 기능 손상이 수발 상황을 낳았을지라도 손상 정도가 수발자 부담의 유일한 결정 요소는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제공된 보살핌을 통제할 때, 수발 대상 노인의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수발자 부담에 정비례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 5). 신체적 수발 관련 정도와 재정적 책임 정도는 수발자 부담과 정비례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설이 세워졌다 (가설 6).

가족 보호에 관한 문헌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반적 가정은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수발자 부담이 낮다는 것이나 심한 심신 기능손상이나 수발 필요성이 수발 대상자의 높은 의존 상태를 감당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 확대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심신 기능 손상 정도를 통제할 때, 수발자에게 가능한 사회적 지지 정도와 수발자 부담 정도 간에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된다 (가설 7).

상호성(reciprocity) 원칙에 의거해 수발자에 대한 보상이 수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조정한다고 추정되므로,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통제될 때, 보상 정도와 수발자 부담 간에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된다 (가설 8).

2. 표본

본 연구의 표본은 기능적 혹은 인지적으로 손상된 재가 노인을 돌보고 있는 169명의 가족 수발자들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두 단계 표본 추출 절차를 취했다. 첫 단계는 본 연구 표본장소들(sample sites)에 포함시킬 병원, 간병인 기관 그리고 종합 사회 복지관을 서울에서 선정하는 것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병원 명부를 이용해 신경

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10개의 대학 병원이 무작위로 선출되었다.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에 소재한 간병인 기관이 4개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4 개 기관 모두 첫 단계 표본 추출에 포함시켰다. 2 개의 노인 종합 복지관과 가난한 노인들에게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 개의 종합 복지관이 또한 포함되었다. 그 가운데 6 개 대학 병원, 4 개 간병인 기관, 2 개 노인 종합 복지관과 3 개 종합 복지관이 본 연구에 협조하기로 동의했다. 그 결과 본 연구자는 병원으로부터 278 명, 간병인 기관으로부터 77 명, 노인 종합 복지관에서 245 명, 종합 복지관에서 67 명의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 명단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표본의 준거 (sampling frame)는 667 명의 기능적 또는 인지적으로 손상된 노인들로 이루어졌다. 두번째 표본 추출 절차는 전술한 표본의 준거에서 200 명의 기능적 또는 인지적으로 손상된 노인들의 무작위 선정이었다. 모두 169 명의 수발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여 응답률은 84.5 % 였다.

수발자의 평균 연령은 51.83 세이며 연령 범위는 16 세부터 82 세 사이였다. 여성(87.6 %)이 가족 수발자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발자와 수발 대상자와의 관계를 보면 수발자의 약 1/3 이 부인이며, 맏며느리가 23.7 %, 출가한 딸이 14.8 %, 남편이 10.1 %, 맏며느리가 아닌 며느리가 9.5 %, 기타(미혼인 딸이나 아들, 형제, 손주)가 8.9 % 였다. 수발자의 결혼 상태는 대부분(89.3 %)이 기혼이며 7.1 % 가 미혼, 3.0 % 가 사별하였으며 0.6 % 인 단 1 명의 수발자가 이혼하였다. 수발자의 28.4 % 가 가정 밖에서 취업한 상태였다. 수발 대상 노인의 수입을 제외한 수발자 가족의 월 수입은 평균 820,909 원이며 수입 범위는 '전혀 없다' 부터 4,000,000 원까지 다양하였다. 대부분 수발자의 교육 수준은 낮은 편이어서 52.1 % 가 국민학교 이하이고 24 % 가 고졸이하이며 13 % 만이 4년제 대졸자였다. 대부분의 수발자(88.2%)가 수발 대상 노인과 둘거중이었다. 수발 대상 노인의 연령은 60 세부터 86 세 사이이며, 평균 66 세 였다. 수발 대상 노인의 56 % 가 여성이며 52 % 가 유배우자였다. 수발 대상 노인중 28 % 만이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을 갖고 있었다. 거의 모든 노인(98.8%)이 적어도 한가지의 일상 기능 활동에 제한을 갖고 있으며 노인의 기능적 손상의 평균 점수는 6.1 이었다 (최고 손상 점수는 18). 수발자의 1/3 이 계속적인 감독

(constant supervision)을 필요로 했다. 57 %는 인지적으로 전혀 손상되지 않았으며 인지적 손상의 평균 점수는 최고 손상 점수가 14 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점수인 2.6 이었다.

3. 자료 수집 방법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수발자들과의 전화 면접이었다. 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10 명의 수발자들에게는 직접 면접(face-to-face)이 행해졌다. 면접은 1990년 7월부터 1990년 9월 까지 본 연구자에 의해 행해졌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 대상자마다 5,000 원씩의 사례가 제공되었다.

4. 연구 변수의 측정

수발자 부담은 수발자 부담의 다섯 차원 [① 재정적 영향(perceived impact on finances) ②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feelings of abandonment) ③ 일과에 대한 영향(perceived impact on schedule) ④ 건강에 대한 영향(perceived impact on health) ⑤ 올가미 쓴 느낌(sense of entrapment)] 을 평가하는 Stommel 등에 의해 만들어진 31 항목 지표²⁵⁾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은 4 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의 결과는 수발자 부담 지표에서 일부 항목들이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 밝혀진 요인들과 불일치하는 상이한 요인들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발자 부담의 각 차원별 측정은 본 연구 대상인 한국인 수발자에 대한 그 지표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되었다. 요인 분석에서 적재치 0.70 이상인 항목들만 수정된 수발자 부담 지표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본래의 31 개 항목 가운데 20 개 항목이 수정된 지표에 남게 되었다.

차원별 부담 점수는 각 차원의 4 점 척도 항목에서의 모든 응답을 합계 한 것이다. 재정적 영향(3 항목)의 점수는 3에서 12 사이이며,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3 항목)도 3에서 12 사이이며, 일정에 대한 영향(5 항

25) Stommel, M. et al., op.cit.

목)은 5에서 20이며, 건강에 대한 영향(2 항목)은 2에서 8이고, 올가미 쓴 느낌(7 항목)은 7에서 28 사이이다. 앞서 암시한대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발자 부담이 크다.

수정된 지표의 다섯 차원의 신뢰도는 “재정적 영향”이 $\alpha = 0.90$, “가족들에게서 버려진 느낌”이 $\alpha = 0.91$, “일과에 대한 영향”이 $\alpha = 0.94$, “건강에 대한 영향”이 $\alpha = 0.97$, 그리고 “올가미 쓴 느낌”이 $\alpha = 0.94$ 였다.

수발자의 경제적 상태는 단일 항목, 즉 수발 대상 노인의 수입을 제외한 가족 수입 크기로 측정되었다. 수발자의 전반적 건강 상태는 “매우 좋다”에서 “매우 나쁘다”에 이르는 5 범주로 나뉘어지는 서열 척도로 측정되었다. 수발 대상자의 재정적 상태는 수발 대상자가 정기적인 수입 또는 재산을 가졌는지 여부로 측정되었다.

수발자와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의 관계가 수발자 선정 관습에 관한 전통적인 문화적 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한국 문화에 관한 문헌에 근거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다. 수발 대상 노인이 여자 또는 사별한 남자일 때는 말며느리, 수발 대상 노인이 유배우자인 남자인 경우는 그 부인이 전통적 규범에 적합한 수발자로, 그외 다른 관계들은 상대적으로 그 규범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문화적 규범에 대한 수발자의 찬성 정도는 수발자의 수발자 선정 규범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수발자 부담 정도간의 상관 관계가 어떤지 조사하기 위한 통제 변수로 도입되었다. 수발자 선정 규범에 대한 수발자의 찬성 정도는 본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6 항목 지표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은 4 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점수는 최하위 6부터 최상위의 찬성 24에 이른다. 신뢰도는 $\alpha = 0.89$ 였다.

노인의 심신 기능 손상은 2 가지 종류의 손상 즉 기능적 손상과 인지적인 손상을 평가하는 두 지표로 측정되었다. 기능적 손상은 노인의 9 가지 일상 활동(보행, 체워 바꾸기,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화장실 사용, 대소변 실금 여부, 장거리 외출, 약 복용)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9 항목 지표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인 기능 손상 점수는 모든 활동 영역 점수를 합계하여 계산되었다. 가능한 점수는 0에서 18 까지이다. 기능적 손상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0.94$ 였다. 인지적 손상은 노인이 혼돈과 기억력 상실에 관련된 행동을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평가하는, Given 등이 만든 7 항목 지표²⁶⁾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은 3 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인 인지적 손상 점수는 노인이 나타낸 모든 행동에 걸친 빈도 점수를 합계하여 계산되었다. 그 지표 점수는 0에서 14에 이른다. 인지적 손상 지표의 신뢰도는 $\alpha = 0.95$ 였다.

신체적 수발과 재정적 책임 측면에서 수발자가 수발에 관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매일의 신체적 수발 시간과 병 시중으로 인한 가족의 재정적 책임 정도가 질문되었다. 가족 성원들이 맡고 있는 재정적 책임 정도는 5점 척도(0 = 전혀, 1 = 조금, 2 = 꽤, 3 = 많이, 4 = 매우 많이)인 단일 질문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도구적인 지원과 사회·정서적인 지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상이한 종류들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개념의 구체적인 측정이 선택되었다. 수발자에게 이용 가능하거나 제공된 도구적 지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체적 수발에 있어서 사적인 도움, 사적인 재정적 원조, 유료의 도움(paid-help) 및 공적 사회적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사회·정서적 지지는 Turner 등에 의해 만들어진 15 항목 지표²⁷⁾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은 3 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에 의거해 사회·정서적 지지 지표 역시 수정되었다. 요인 분석에서 적재치 0.7 이상인 항목들만 선정되어 원래의 지표에서 3 항목이 제외되었다. 수정된 지표의 신뢰도는 $\alpha = 0.93$ 였다. 종합적인 사회·정서적 지지 점수는 12 항목 모두를 합계내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그 점수는 0에서 24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지지가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발에 대한 보상을 평가하기 위해 상이한 종류의 보상 즉, ① 노인의 감사 표현 빈도, ② 노인이 재정적 보상을 하는지 여부, ③ 수발자와 수발

-
- 26) Given, C. W., & Given, B., "The Impact of Alzheimer's Disease on Family Caregivers", Final Report for Grant #1 R01 MH41766, funded by HHS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9.
 - 27) Turner, R. J., Frankel, B. G., & Levin, D. M., "Social Suppor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Resera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3, 1983, pp. 67-111.

대상 노인간 상호관계의 질에 있어서 변화. ④ 사회적 칭찬의 빈도가 각기 따로 측정되었다. 노인의 감사 표현과 사회적 칭찬의 빈도는 5 점 척도(1 = 아주 드물게 혹은 전혀, 2 = 간혹가다, 3 = 때때로, 4 = 자주, 5 = 거의 늘 혹은 항상)로 평가되었다. 상호 관계의 질에 있어서의 변화는 다음 범주로 (1 = 아주 악화되었다, 2 = 약간 악화되었다, 3 = 그대로이다, 4 = 약간 좋아졌다, 5 = 아주 좋아졌다) 평가되었다. 전술한 주요 연구 변수 외에 많은 다른 변수들이 가족 수발의 폐턴, 수발자와 수발 대상자의 특성 및 수발자 부담과의 상관 관계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측정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이 실시되었다. 또한 수발자 부담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18 개 주요 독립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각 독립 변수의 예측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β) 와 통계적 유의미수준(F level)에 초점을 둔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표 1>은 4 개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 변수(기능적 손상, 인지적 손상, 신체적 수발에 소요되는 매일의 시간, 수발자 가족의 재정적 책임)들과 전통적인 수발자 선정 규범에 대한 수발자의 찬성 정도를 통제했을 때 수발자의 그 규범과의 적합성 여부가 부담의 다섯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수발자의 문화적 규범과의 적합성 여부가 부담의 두 차원에 있어서 -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r_p = 0.23, p < 0.01$)과 울가미를 쓴 느낌($r_p = 0.14, p < 0.1$)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인자였다. 이 변수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의 변량(variance)에 있어서 5% 와 울가미 쓴 느낌의 2%를 설명한다. 이 연구 결과는 수발자 선정에 관한 문화적 규범에 적합한 수발자들이 그렇지 않은 수발자보다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과 울가미를

쓴 느낌이 덜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설 1 은 수발자 부담의 감정적 반응 차원들에서만 입증되었다.

〈표 1〉 수발자 선정에 관한 전통적 규범과의 적합성이 수발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r_p)¹⁾

예측 인자	I (재정적 영향)	II(가족들로부터 벼려진 느낌)	III(일과에 대한 영향)	IV(건강에 대한 영향)	V(울가미 쓴 느낌)
심신 기능 손상과 수발자 관련					
수발자 기능 손상					
기능적 손상	-0.06	0.04	0.28****	0.04	0.26****
인지적 손상	-0.00	-0.01	-0.00	0.14*	0.10
신체적 수발 시간	0.11	-0.01	0.67****	0.18**	0.09
재정적 책임	0.01	-0.07	-0.04	-0.19**	0.06
R ²	0.013	0.006	0.644****	0.104***	0.218****
수발자의 전통적 규범에 대한 태도					
규범에 대한 태도	0.19**	0.08	0.16**	0.20***	0.10
△R ²	0.037**	0.006	0.009**	0.038***	0.007
전통적 규범에 따른 적합성					
적합성	0.08	0.23***	-0.06	-0.10	0.14*
△R ²	0.006	0.052***	0.001	0.009	0.016*

1) 재정적 책임과 수발자의 전통적 규범에 따른 적합성의 coding 은 다음과 같다. 재정적 책임 : 전혀 = 0, 조금 부담 = 1, 꽤 부담 = 2, 많이 부담 = 3, 아주 많이 부담 = 4; 전통적 규범에 따른 적합성 : 적합한 수발자 = 0, 부적합한 수발자 = 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가설 2 에서 가정된 것처럼 수발자의 가족 소득은 심신 기능 손상 정도를 통제했을 때 수발자 부담의 모든 차원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소였다 (표 2). 그 상관 관계는 “재정적 영향”에 대해 부분 상관계수(r_p)가 -0.61, “가족들로부터 벼려진 느낌”에 대해 -0.40,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해 -0.28, “울가미를 쓴 느낌”에 있어서 -0.20 과 “일과에 대한 영향”에 가장 낮은 -0.17 였다. 이 부분 상관계수들은 유의 수준 0.01 이나 0.001 미만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마이너스 부호가 나타내듯이 수발자의 가족 소득은 수발자 부담의 모든 차원과 역상관관계였다. 수발자의 가족수입이 재정적 영향에 있어서 그 변량의 37%, 가족들로부터 벼림받은 느낌은 16%, 건

강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8%, 올가미 쓴 느낌의 3%, 일과에 대한 영향의 2%를 설명했다. 이는 수발자가족에게 수발이 미치는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그 가족의 경제적 여건의 작용임을 의미한다. 심신 기능 손상 정도를 통계하면,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수발자 부담은 더 낮았다.

〈표 2〉 가족 수입이 수발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r_p)

예측 인자	I(재정적 영향)	II(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III(일과에 대한 영향)	IV(건강에 대한 영향)	V(올가미 쓴 느낌)
심신 기능 손상					
기능적 손상	-0.03	0.01	0.50****	0.03	0.37****
인지적 손상	0.03	0.00	0.15*	0.12	0.16*
R ²	0.001	0.000	0.329****	0.020	0.218****
가족수입	-0.61****	-0.40****	-0.17**	-0.28****	-0.20**
△R ²	0.368****	0.157****	0.019**	0.078****	0.030**

* p < 0.1 ** p < 0.05 *** p < 0.001

〈표 3〉은 가설 3에서 가정되었듯이 수발자의 건강 상태가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통제될 때 부담의 내기지 차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에 대한 영향, $r_p = 0.72$: 재정적 영향, $r_p = 0.33$: 일정에 대한 영향, $r_p = 0.24$: 올가미 쓴 느낌, $r_p = 0.16$). 표 3은 또한 심신기능 손상정도가 통제될 때 수발자의 건강상태가 건강에 대한 영향의 변량의 49%, 재정에 대한 영향의 변량 11%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발자 부담의 다른 차원들에 있어서 수발자 건강상태로 설명되는 변량의 양은 매우 작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발자들은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차원을 제외한 다른 차원들에 있어서는 수발자 부담을 덜 갖는 것으로 가설 3을 입증했다.

<표 3> 수발자의 건강 상태가 수발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r_p)²⁾

예측 인자	I (재정적 영향)	II(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III(일과에 대한 영향)	IV(건강에 대한 영향)	V(을가미 쓴 느낌)
심신 기능 손상					
기능적 손상	-0.01	-0.00	0.51****	0.07	0.36****
인지적 손상	0.03	-0.00	0.14*	0.16**	0.14*
R ²	0.001	0.000	0.355****	0.048**	0.208****
수발자의 건강상태	0.33****	0.12	0.24***	0.72****	0.16**
△R ²	0.107****	0.014	0.039***	0.493****	0.020**

2) 건강 상태의 coding : 매우 좋다 = 1, 좋은 편이다 = 2, 보통이다 = 3, 나쁜 편이다 = 4, 매우 나쁜 편이다 = 5.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수발자의 건강 상태가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차원에 대해 약한 예측 인자인 반면 수발 대상 노인의 재정적 상태는 심신 기능 손상 정도를 통제 할 때 그 차원의 중요한 예측 인자($r_p = 0.38$)임이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 (표 4). 표 4에서 보듯이 노인의 재정적 상태는 유의수준 0.001 미만에서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의 변량의 15%를 설명했다. <표 4>는 또한 노인의 재정적 상태가 수발자 부담의 다른 차원들에 있어서도 약하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인자임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가설 4에서 가정되듯이 재정적 자원이 있는 노인을 돌보는 수발자들이 재정적 영향,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을가미 쓴 느낌 차원에서 재정적 자원이 없는 노인을 돌보는 수발자보다 낮은 수준의 부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정적 자원이 있는 노인은 돌보는 수발자들이 일과 및 건강에 있어서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인의 재정적 상태가 수발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r_p)³⁾

예측 인자	I(재정적 영향)	II(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III(일과에 대한 영향)	IV(건강에 대한 영향)	V(을가미 쓴 느낌)
심신 기능 손상					
기능적 손상	0.03	0.04	0.49****	0.14	0.36****
인지적 손상	0.04	0.07	0.08	0.20**	0.15*
R ²	0.004	0.013	0.316****	0.1****	0.220****
재정적 상태	0.19**	0.38****	-0.28***	-0.17*	0.22**
△R ²	0.035**	0.145****	0.053***	0.027*	0.037**

3) 재정적 상태의 coding : 정규적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 = 0, 정규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 = 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심신 기능의 손상정도는, 특히 인지적 손상은 수발자 관련 정도가 통제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수발자 부담의 약한 결정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손상은 부담의 두 차원에 - 일과에 대한 영향($r_p = 0.27$, $p < 0.001$) 과 을가미 쓴 느낌($r_p = 0.27$, $p < 0.001$)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부분 상관 계수치들은 가설 5 가 가정하듯이 수발 대상자가 기능적 손상이 심할수록 수발자 의 일과와 을가미 쓴 느낌 차원에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심신기능 손상은 유의수준 0.001 미만에서 을가미 쓴 느낌의 8.4% 를 설명한 반면 부담의 다른 차원들에 대한 예측력은 매우 약했다. 그러므로 가설 5 는 일부 차원에서만 입증되었다.

<표 5> 심신 기능 손상이 수발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r_p)⁴⁾

예측 인자	I(재정적 책임 영향)	II(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III(일과에 대한 영향)	IV(건강에 대한 영향)	V(올가미 쓴 느낌)
수발자 관련					
신체적 수발시간	0.10	0.01	0.76****	0.28****	0.28****
재정적 책임	-0.01	-0.05	0.04	-0.16**	0.16**
R ²	0.01	0.003	0.613****	0.084****	0.137****
심신 기능 손상					
기능적 손상	-0.06	0.03	0.27****	0.05	0.27****
인지적 손상	-0.00	-0.01	-0.00	0.13*	0.10
△R ²	0.004	0.001	0.03***	0.022	0.084****

4) 재정적 책임의 coding : 전혀 = 0, 조금 부담 = 1, 꽤 부담 = 2, 많이 부담 = 3, 아주 많이 부담 = 4.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수발자의 신체적 수발에 있어서 관련 정도는 수발자 부담의 일과에 대한 영향, 건강에 대한 영향, 올가미 쓴 느낌 차원들과 정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수발 가족의 재정적 책임정도는 일과에 대한 영향과 올가미 쓴 느낌 차원에만 정비례하였다(표 6). 무차 상관 계수치(Zero-order correlation coefficients)들은 수발자가 신체적 수발을 많이 들수록 일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 ($r = 0.78$),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r = 0.24$)과 올가미 쓴 느낌 ($r = 0.34$)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수발 가족이 노인을 보살피는데 있어 재정적 책임이 들수록 일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 ($r = 0.28$)과 올가미 쓴 느낌 ($r = 0.24$)이 더 강하다. 수발자의 관련 정도는 재정적 영향과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차원과는 거의 상관 관계가 없었다. 또한 수발 가족의 재정적 책임 정도는 수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6 은 수발자 부담의 일부 차원에서만 입증되었다.

<표 6> 수발자 관련 정도와 수발자 부담의 상관 관계(Pearson r)

	신체적 수발 시간	재정적 책임
I 재정적 영향	0.10	0.02
II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0.01	-0.06
III 일과에 대한 영향	0.78***	0.28***
IV 건강에 대한 영향	0.24**	-0.08
V 올가미 쓴 느낌	0.34***	0.24**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7>에서 보듯이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통제될 때 상이한 종류의 사회적 지지가 수발자 부담의 각기 다른 차원들의 강력한 결정 요소였다. 예를 들어 사회 정서적 지지는 일과에 대한 영향을 제외한 네 가지 차원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 요소였다. 부분 상관 계수들은 유의 수준 0.001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에 있어서 $r_p = -0.51$, 건강에 대한 영향은 $r_p = -0.44$, 그리고 재정적 영향과 올가미 쓴 느낌 두 차원에 대해서는 $r_p = -0.34$ 였다. 일관된 마이너스 부호는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통제될 때 수발자에 대한 사회 정서적 지지가 클수록 그 네 차원에서의 수발자 부담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료 도움은 재정적 영향 ($r_p = 0.28$, $p < 0.001$), 일과에 대한 영향 ($r_p = 0.25$, $p < 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관 관계가 있는데 이는 노인의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통제될 때, 유료 도움을 이용하는 수발자가 이용하지 않는 수발자보다 경제적 부담과 일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적인 재정적 원조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r_p = 0.20$, $p < 0.25$)과 올가미 쓴 느낌 ($r_p = 0.16$, $p < 0.05$) 차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비록 부분 상관 계수가 낮은 편이지만 그 연구 결과는 사적인 재정적 원조가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과 올가미 쓴 느낌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수발에 대한 사적 도움은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차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 ($r_p = 0.26$, $p < 0.01$)가 있었으며, 공적인 사

회적 서비스는 일과에 대한 영향과 상관 관계 ($r_p = 0.30$, $p < 0.001$) 가 있었다. 즉 신체적 수발에 대한 사적 도움은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완화시키며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은 일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종합적인 사회적 지지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의 변량 45% 와 재정적 영향의 32% 를 설명했고, 다른 차원들에서도 상당한 양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7 은 이 연구결과로 입증되었다.

<표 7> 사회적 지지가 수발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r_p)⁵⁾

예측 인자	I(재정적 영향)	II(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	III(일과에 대한 영향)	IV(건강에 대한 영향)	V(올가미 쓴 느낌)
심신 기능 손상					
기능적 손상	-0.00	-0.00	0.51****	0.07	0.36****
인지적 손상	0.03	0.00	0.15*	0.17**	0.14*
R ²	0.001	0.000	0.358****	0.052**	0.214****
사회적 지지					
신체적 수발에					
대한 사적 도움	0.12	0.26***	-0.03	-0.02	-0.04
사적인 재정적					
원조	0.01	0.20**	0.03	-0.05	0.16**
유료 도움	0.28****	-0.04	0.25***	-0.09	0.08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	-0.13	-0.13	0.30****	0.02	0.11
사회 정서적 지지	-0.34****	-0.51****	-0.00	-0.44****	-0.34****
△R ²	0.322****	0.452****	0.086****	0.192****	0.143****

5) 신체적 수발에 대한 사적 도움, 사적인 재정적 원조, 유료 도움,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coding : 있다 = 0, 없다 = 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8>은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통제될 때 특히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과 올가미 쓴 느낌 차원에 있어서 수발자 부담의 차이는 보상의 상이한 종류들로 설명되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노인의 감사 표현은 수발자 부담의 다섯 차원 중 그 어느 차원에서도 예측력이 약했다. 수발 대상자로 부터의 재정적 보상은 재정적 영향 차원 ($r_p = 0.25$, $p < 0.01$), 가족들로

부터 벼려진 느낌 ($r_p = 0.28$, $p < 0.001$), 올가미 쓴 느낌 ($r_p = 0.16$, $p < 0.1$) 차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정 요소로 밝혀졌다. 이는 수발 대상자로부터 재정적 보상이 있으면 재정적 부담, 가족들로부터 벼려진 느낌과 올가미 쓴 느낌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관계의 질은 올가미 쓴 느낌 ($r_p = -0.31$, $p < 0.001$)과 재정적 영향 ($r_p = -0.18$, $p < 0.05$)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소였다. 즉 노인의 심신 기능 손상 정도가 일정할 때, 수발든 이후 노인과의 관계가 좋아진 수발자들이 관계가 악화된 수발자 보다 올가미 쓴 느낌을 덜 가지며 재정적 부담을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칭찬은 가족들로부터 벼려진 느낌 ($r_p = -0.16$, $p < 0.1$), 올가미 쓴 느낌 ($r_p = -0.14$, $p < 0.1$)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수발 노력에 대해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수발자들이 가족들로부터 벼림받은 느낌과 올가미 쓴 느낌을 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의 총합이 가족들로부터 벼려진 느낌의 변량 20%, 올가미 쓴 느낌의 18%, 재정적 영향에 있어서 10%, 일과에 대한 영향의 4%를 설명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영향 차원을 제외하고, 가설 8은 입증되었다.

<표 8> 수발에 대한 보상이 수발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r_p)⁶⁾

예측 인자	I(재정적 영향)	II(가족들로부터 벼려진 느낌)	III(일과에 대한 영향)	IV(건강에 대한 영향)	V(올가미 쓴 느낌)
심신 기능 손상					
기능적 손상	-0.01	0.00	0.47****	0.08	0.35****
인지적 손상	0.03	0.01	0.16**	0.16*	0.15*
R ²	0.001	0.000	0.328****	0.051**	0.217****
보상					
수발 대상자의 감사 표현	0.10	-0.10	0.12	0.12	-0.02
수발 대상자의 재정적 보상	0.25***	0.28****	0.07	0.08	0.16*
상호 관계의 질	-0.18**	-0.10	0.12	-0.09	-0.31****
사회적 칭찬	0.01	-0.16*	0.02	-0.04	-0.14*
△R ²	0.104***	0.204****	0.036*	0.023	0.181****

6) 재정적 보상의 coding : 있다 = 0, 없다 = 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마지막으로 <표 9>는 수발자 부담의 각 차원에 대해 개념적 를에서 논의한 18 개 주요한 독립 변수들의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결정 계수(R^2)가 나타내는 것처럼 18 개 예측 인자들에서의 변이(variations)가 재정적 영향의 variance 의 46%, 가족들로부터 벼려진 느낌의 57%, 일과에 대한 영향의 71%, 건강에 대한 영향의 52%, 올가미 쓴 느낌의 54%를 설명했다.

예측 인자들의 상이한 set 들이 수발자 부담의 각기 다른 차원들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특정 예측 인자가 다른 예측 인자들이 통제되었을 때 부담의 각 차원에 관련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각 예측 인자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β)와 통계적 유의미 수준(F level)이 <표 9>에 나와 있다.

<표 9> 18 개 예측 인자들의 수발자 부담의 차원별 표준화된 회귀 계수(β) 및 통계적 유의성⁷⁾

예측 인자	수발자 부담의 차원				
	I(재정적 영향)	II(가족들로부터 벼려진 느낌)	III(일과에 대한 영향)	IV(건강에 대한 영향)	V(을가미 쓴 느낌)
수발자의 전통적 규범에 대한 찬성 정도					
찬성 정도	-0.00	-0.04	0.14**	0.07	0.08
수발자의 전통적 규범과의 적합성					
가족 수입	-0.00	0.08	0.06	0.08	0.19**
수발자 건강 상태	0.20**	-0.06	0.05	0.63****	0.00
노인의 재정 상태	-0.04	0.17**	-0.12**	-0.02	0.05
기능적 손상	0.17*	0.03	0.08	0.00	0.07
인지적 손상	0.07	0.14*	0.02	0.11	0.11
신체적 수발에 드는 시간					
재정적 책임 정도	-0.03	0.10	0.72****	0.19**	0.23***
신체적 수발에 대한 사적 원조					
사적인 재정적 원조	0.33****	0.32****	0.00	0.10	0.23***
유료 도움의 이용 여부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 여부	0.05	-0.12	0.09	-0.20***	0.00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 여부					
사회 정서적 지지	-0.07	0.10	0.23***	-0.02	0.15*
노인의 감사 표현 빈도					
재정적 보상	-0.03	-0.28***	0.04	-0.12	-0.19**
사회적 칭찬 빈도	0.02	-0.20**	-0.01	-0.02	-0.04
R ²	0.46	0.57	0.71	0.52	0.54

7) 수발자의 건강 상태 coding : 매우 좋다 = 1, 좋은 편이다 = 2, 보통이다 = 3, 나쁜 편이다 = 4, 매우 나쁘다 = 5; 노인의 재정 상태 :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 = 0, 없다 = 1; 재정적 책임 : 전혀 없다 = 0, 조금 부담 = 1, 꽤 부담 = 2, 많이 부담 = 3, 아주 많이 부담 = 4; 신체적 수발에 대한 사적인 도움 : 있다 = 0, 없다 = 1; 사적인 재정적 원조 : 있다 = 0, 없다 = 1; 유료 도움 : 있다 = 0, 없다 = 1;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

여부 : 한다 = 0, 안한다 = 1; 재정적 보상 : 있다 = 0, 없다 = 1; 수발자의 문화적 규범과의 적합성 : 적합한 수발자 = 0, 부적합한 수발자 = 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인자에 초점을 두면 수발자의 가족 수입 ($\beta = -0.61$), 가족 성원들의 재정적 책임 ($\beta = 0.33$), 수발자의 건강 상태 ($\beta = 0.20$), 사적인 재정적 원조 ($\beta = 0.19$), 수발 대상자의 재정적 보상 ($\beta = 0.14$)이 재정적 영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들이다.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에 대해서는 8 개의 예측 인자들 즉, 가족 성원들의 재정적 책임 ($\beta = 0.32$), 사회 정서적 지지 ($\beta = -0.28$), 가족 소득과 사회적 칭찬 빈도 ($\beta = -0.24$), 사적인 재정적 원조 ($\beta = 0.21$), 노인의 감사 표현 빈도 ($\beta = -0.20$), 노인의 재정적 상태 ($\beta = 0.17$)와 인지적 손상 정도 ($\beta = 0.14$) 가 주로 설명하였다.

일정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들은 매일의 신체적 수발 시간 ($\beta = 0.72$),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 활용 ($\beta = 0.23$), 수발자의 문화적 규범에 대한 찬성 정도 ($\beta = 0.14$)와 노인의 재정적 상태 ($\beta = -0.12$) 등이었다. 수발자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수발자의 건강 상태 ($\beta = 0.63$), 유료 도움 이용여부 ($\beta = -0.20$), 매일의 신체적 수발 시간 ($\beta = 0.19$)과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다.

수발자 부담의 올가미 쓴 느낌 차원에 대해서는 8 개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호 관계의 질 ($\beta = -0.42$), 매일의 신체적 수발 시간과 수발자 가족의 재정적 책임 정도 ($\beta = 0.23$), 수발자의 수발자 선정에 관한 문화적 규범과의 적합성 여부 ($\beta = 0.19$), 사회 정서적 지지 ($\beta = -0.19$), 신체적 수발에 대한 사적 도움 여부 ($\beta = -0.17$),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 활용 여부 ($\beta = 0.15$), 사회적 칭찬의 빈도 ($\beta = -0.15$)가 그 변수들이다.

V.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수발자 선정 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가 기

대했던 것만큼 수발자 부담의 강력한 결정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발자의 전통적 규범과의 적합성 여부는 수발자 부담의 일부 차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인자였다. 즉 문화적 기대에 적합한 수발자들이 그렇지 않은 수발자들보다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과 올가미 쓴 느낌을 적게 느끼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가족 소득과 가족의 재정적 책임 정도를 포함한 재정적 요소들, 신체적 수발에 드는 매일 평균 시간, 수발자의 건강 상태 등이 한국에서의 수발자 부담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로서 문화적 요소보다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한국에서 심신기능이 손상된 노인에게 유효한 정부예산 지원의 재정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것을 감안한다면 수발자와 수발자 대상노인의 재정적 여건이 수발자 부담의 일부 차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로 밝혀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술한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장기적 보호(*long-term care*)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한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처럼 가족들에게 노인 부양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과 그 가족 수발자의 변화하는 욕구와 관심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수발자 선정에 관한 전통적 관습은 더이상 현대 한국사회에서 치비적이지 못한 규범이며,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문화적인 유형의 요소들이 수발자 부담의 결정 요소로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과 그 수발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의 지속적인 부재 시 현 수준의 가족 보호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전통적 가치 및 태도들을 정책에 반영시키지 않는 정부의 자세는 노인들, 특히 심신 기능이 손상된 노인들과 그 수발가족의 불충족된 재정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 요구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악화시키기 쉽다. 가족 보호를 장려하고 강조하는 장기적 보호(*long-term care*)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설보호보다 더 예산 절감이 될 것이며 가족 보호라는 전통적인 관습을 보전할 것이다. 심신 기능 손상 노인과 가족 수발자들을 위해 재정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은 절실하다. 그러한 지원은 재가 서비스(*in-home service*), 주간

보호 센터(adult day care centers), 지역 사회 간호(community nursing), 와상 노인을 위한 시설 보호(residential services) 와 세제상의 혜택 등을 포함한다.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정부 예산 압박을 참작하여 재정적으로 곤궁한 노인이나 가족 수발자에게 우선적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 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저소득 노인들에게 적정한 소득과 건강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공적 부조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을 가진 노인에게만 수혜 자격을 주는 현재의 공적 부조 프로그램 정책은 가족이 있지만 가족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곤궁한 노인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한편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사회적 가치로 볼 때, 현재와 같이 노인 보호를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의 대안으로서 노후의 경제적 자립 필요성과 중요성이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몽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은퇴시 재산 대부분을 자식들, 특히 장남에게 양도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또 그들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노후 부양을 책임지리라는 기대하에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결혼 비용 등에 과다한 지출을 하여 자신들의 노후 대책은 소홀히 하였다. 전통적으로는 이에 대한 답례로서 아들 특히 장남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지배적이지 못하며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래의 보호를 가족 성원들에게 전적으로 떠맡기는 대신 신체적인 수발은 가족에게 의존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퇴 후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는, 노인들 편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또하나 중요한 결과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즉 사회·정서적 지지, 사회적 칭찬, 수발자와 수발대상 노인과의 좋은 상호 관계, 노인의 감사 표현과 같은 비도구적(non-instrumental), 사회적 지지와 보상이 가족들로부터 벼려진 느낌과 올가미 쓴 느낌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적 또는 도구적 원조 없이도 수발자의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누구보다도 수발 대상 노인 스스로 수발자들이 자신의 수발 행위를 덜 부담스럽게 혹은 보람있는 인생 경험으로 여

기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들 특히 수발자의 수발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노인들에게 수발자와 좋은 인간 관계를 수립하는 것과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수발자의 부담감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발자의 다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회·정서적 지지와 수발 노력에 대한 칭찬이 수발자의 좌절감과 부담감을 완화시켜준다는 사실 또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수발자, 수발대상 노인, 다른 가족 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간의 이해, 극복과 대화 기술, 긍정적 자기 평가와 사적인 지원망 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조 집단 활동과 전문적 상담과 같은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